

□ 이혁근 목사 간증 (성령으로 축복받은 교회)

1. 새벽기도

새벽에 줄 자는 재림 때 줄 자다. - 새벽기도 참석율 60%

새벽기도 때도 성령운동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함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주십시오 !

2. 예배에서의 변화

예배 진행하면서 성령이 임한다.
단상에서 기도
“주님, 전 단상에 서 있기만 할테니 주님이 전해주세요.”

3. 생명전도에서의 혁신

생명전도
게시자가 나오게 됨
사도행전 2장 :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
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4. 교역자가 먼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늘 잊지 말아라.

□ 임주현 목사 간증 (성령으로 축복받은 교회)

1. 회개

자만심과 자부심이 팍 차 있었다. (목회 실패한 경험 없고 전도공적자)

99마리의 양 보다 잃은 양 1마리를 슬퍼하시는 예수님
나름대로 잘 해왔다. -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그러나 내가 전도한 만큼 내가 죽인 생명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지옥에 내가 제 1번으로 가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회 자복을 엄청나게 했다.
교회 운영진, 프로그램, 선교, 강의 등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구상해놓고 주님 허락해주세요. 하고 했던 것이 너무 회개가 되었다.
선배로서 후배에게 너무 잘못 가르친 것이 회개되었다.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실천은 나와 제자들”
그러나 늘 선생님만 앞세운 것이 잘못 되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이 잘못 된 것부터가 문제였다.
생명력 없는 증거가 계속 되었다.

이러한 나의 개념하에 양육되어 온 후배들에게 너무 부끄러웠다.

선생님을 보면서 느껴야 할 부분이
바로 “아 ! 저렇게 해야 신부가 되는 구나..“ 하고
느꼈어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역사는 목회자, 교단의 국장, 사명자들 키울려고
해온 역사가 아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 신부가
되길 원하셨다.

신부를 키우시려고 이 역사를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이 교회의 목회자는 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다.

2. 변화

모든 패턴을 바꾸었다. 힘들었지만 죽자 살자 했다.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 맡겼다.

5월 이후로 새벽기도에 변화가 왔다.
(새벽 2시 이후의 기도 프로그램 정착)
주일 예배 : 9시부터 시작함. 뜨거운 찬양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력으로 하시니 그냥 구경만 했다.
결국은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교인과의 다툼과 갈등이 싹 없어졌다.
강의 하나, 설교 하나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

모든 일거수 일투족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 맘에 드세요” 하면서 하게 되었다.

보고서 쓸 때도 교역자 (예수님), 부교역자 (임주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은 우리의 육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게 되었다.

육성으로 모시다 보니 선생님을 오염시키기까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주님과 일체되는 방법밖에 없다.

주님과 100% 일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어경 목사 간증 (용서)

1. 목회

목회를 잘 하는 자는 결국 목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법

2. 증거

예수님이 마음을 주어서 조은 목사를 증거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많은 무지속의 상극세계, 이제 더 이상 이런 자리는 있어서는 안된다.

3. 회개 / 용서

동부산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4. 조은 목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머릿속의 모든 영상이 사라지지 않으니 점 하나만 남아있어도 결국

물이 떨어져 버리니 다 빠져버리게 하더라.

다 버리게 하시더라.

완전하게 비우지 않으면 안되더라.

육으로 대한 모든 것, 없어야 한다.

육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기지 않는다.

끝까지 하는 자에게 결국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 정비웅 목사 간증 (2007년 4월, 중국에서..)

1. 간증

선생님이 주무신 후에,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한다.

선생님 곁에서 배울려고 하는 것

- 오히려 선생님의 심정을 상하게 한다. 예수님 옆에서 배우면 된다.

평상시 준비하지 못하면 중심자 옆에 가서도 드러난다.

깨닫지 못하고 가면 더 힘들다.

95년 제대, 95년 수료

밖에 나가봐라. 군 연병장에서 블랙홀 같은 구름을 보고 신을 느낌

성경을 혼자 읽기 시작, 안 깨달아져서 불경을 읽어보기 시작함

결국 불경을 타 읽고 스님이 되기 위해 티벳을 가려고 했다.

근데 옆의 사람이 내가 찾는 것 여기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가는 것을 접고 말씀을 듣기 시작함

근데 그때부터 귀신의 이야기가 들림

귀신의 이끌림으로 아이를 차로 치고 화장실에서 예수님께 기도함.

결국 부모가 그 기도로 마음이 뒤틀려져 잘 치료받고 나옴

말씀 들으면서 큰 계기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자는데 2시 반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밖으로 나가보라” 음성이 들림

근데 길 옆에 사람이 쓰러져있음. 성경책이 무릎위에

퍼 있었음

거기서 잠이 들고 있었음.

결국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나를 깨우셔서 회원을 깨우게 함.

그 후, 월명동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월명동에 감

3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밥을 안 줌

96년,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속 말

“소나무 심는 것도 뜻이고 미국에 가는 것도 뜻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지 못해 안 된 것이다” 하심.

태권도 사범, 시범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께 감

선생님께서 “나 누군지 알아? 알면 300명 해 !”

결국 2004년도 300명 함.

그리고 부산에서 종단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뛰어 !!”

결국 뛰다보니 걷는게 너무 쉽더라.

태권도 단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을 만났다.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해서 훈련을 시켜줬다.

결국 SK 최태원 회장을 모시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잘 모시는데 인정받게 해달라 !

그러면 선생님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함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최태원 회장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내가 최태원 회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비서실에서 결국 채용됨

계약 끝나고 중국에 들어가게 됨.

중국에 들어가서 선생님 방 밑에서 선생님을 지키게 됨.

<선생님과의 인연>

선생님께서 나를 교육시킬 때 7개월간 말을 걸지 않았음

한가지 에피소드

개하고 서있는데 2층에서 선생님께서 휘파람을 불기에 개보고

“야, 너 부르신다. 가봐 그런데 선생님께서서는 개 말고 너 !”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번 해봤다.

그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나시고 하시더라.

모심과 섬김의 도 !

결국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면 속을 다 드러내게 된다.

모심과 섬김의 도.

결국 선생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오히려 심정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항상 24시간 선생님의 생각만 해야 된다.

자기의 주관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편지를 자기 뜻대로 주는 것도 선생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다.

모르니 실수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채들은 물가에 있으면서 왜 물에 떠내려가는 나를 몰라주냐?”

선생님을 제대로 모셔야 한다.

이 시대 역시 조은 목사도 잘 모셔야 한다.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감을 주십니까?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선생님 왈 “만물로 주신다.”

책임 분담에 대해 물어보셨다.

완벽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사랑문제, 회개문제에서 완벽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을 놓고 갈려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약 10초간 있었다. 그런데 결코 갈 수 없었다.

그런 조건이 되어 사탄들이 와도 사탄들에게

“나 끝까지 했다. 어쩔래?” 하면 힐문할 수 없었다.

어느날 개가 밥을 줄려는데 개가 선생님을 자꾸 물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웅아 이 현상을 3차원으로 풀어봐라!”

1차원 : 개가 있는 것

2차원 : 개에게 주인이 밥을 주는 것

3차원 : 개가 이러듯이 개 주인도 마음이 이러니 이 자리를 뜨자

라고 하심

“죽을 각오로 선생님을 모셔야 되었다.”

전반기때, 왜 나간지 아느냐?

“누구나 안 나갈려고는 했다. 그런데 안 나갈 짓을 하지 못했다.”

“열차안에 짐 진자가 가고 있다. 그런데 누가 짐을 지는 것 같으냐?

열차가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아닌 메시아 주님이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

“평생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예수님 왈,

“그 시간 영계로 보면 낮이다 ! 왜 새벽에만 기도

할려고 하나?”

선생님과 우리의 차이

“새벽에 알람시계가 깨워지는데 이것은 누가 깨워주는 거냐?”

“사람들은 시계가 깨워주는줄 아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신 것이다.”

선생님 왈,

“애들한테 나 잘 못먹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왜 애들 울리려고 하나?”

저는 중국에서 고문당하고 1달간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맸는데,

선생님은 귀국하고서도 절대 티를 안내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오셨다.

“너는 후유증 없냐?”

선생님께서 어느날 중국에서 회장들을 모시고 축구공을 차는 것을 시범보일려고 하다가 다리가 쥐가 났다.

그래서 오른발로 찰려고 하는 순간 몇 번 차다가 또 오른발까지 쥐가 나셨다.

그래서 그 순간 선생님은 두 발을 땅에다 박고 움직이지질 못하더라. 그런데 회장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보여주라고 하는데

순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선생님은 두 이를 꼭 깨물고 있다가

“에잇” 하더니 두 발로 축구공을 매달고 드리블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거짓말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정신력,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이 경우는 정말 영력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서는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모순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바가 없는 흠없는 신부이다.

정말 깨끗하다.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2007년 4월 15일

이틀 전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시고

“많이 먹어라. 이제 나와 하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심

이를 뒤의 일을 예언을 하심
 한 두시간 전에 알았음.
 시간을 알았지만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 시간안에서 굉장한 일들이 있었다.
 얇은 와이셔츠를 입고 지하에 내려가셨다.
 지하에 영하 2,3도 되는데 3일을 기도하시는데
 물 한번,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를 하심
 서로 겨 앉고 기도를 하심 (체온을 높히려고)
 위에서는 공안들 발자국 소리, 개소리가 들리는데
 3일간 기도한 후 하나님의 말씀
 ‘밖은 내가 주관하니 걱정마라!’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다.
 3일을 기도하신 후,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tu서 하신
 말씀
 “됐다. 한국으로 가자 ! 안 나가면 역사 될 수 없
 다”
 면회를 1년 동안 안 갔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목숨걸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에
 서는 싸우고
 난리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섭리역사, 선생님 빼 놓고 절대 얘기 할 수 없다.
 참으로 깨끗한 신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부지 같은 애인,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선생님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야 한다.
 옥안에서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잡혀들어 갔는데 7평에서 20명이 앉아있는데, 기본
 이 협박이다.
 배추국에 하루 두 번, 옥수수 빵 - 목에 넘어가질
 못한다.
 먹으면 토한다. 설사 나오고.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다.
 조사 받으려면 안 먹을 수 없었다.
 옆사람 어깨 닿는다.
 그 나라는 사람 우습게 죽인다.
 살인범, 강간, 조폭
 고문 : 다른 죄명으로 몰아 대리고 괴롭힌다.
 조막만한 사람에게 맞아야 한다. 싸우면 그 착고
 에 묶어놓았다.
 착고에 개처럼 묶여 13일간 전디었는데 더 참을 수
 가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
 제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더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
 었다.
 죽을려고 맘까지 먹었다.
 달려가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 자살을 해야겠다고

틈만 보았다.
 갑자기 선생님의 들려온 말씀
 “너 벼랑끝에 매달려 기도한 번 해봐!”
 마지막 기도를 아침에 1시간 반쯤 드렸다.
 선생님은 10배 이상 겪으셨다.
 저를 통해 가늠해야 한다.
 1시간 반쯤 기도후에 환상이 보이더라.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저좀 살려주세요..
 여긴 지옥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빼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때리는 사람을 빼 주
 시든지
 그후 사람이 와서 제 이름을 불러서 감방에서 저를
 빼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구원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
 달았다.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선생님은 항상 내가 먼저 길을 뚫을게. 너희들 따라
 와 하셨다.
 선생님 한분 모시기 힘들다.
 선생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분이나 모시고
 다니지 않느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전 고통을 받았지만 제대로 주님을 보았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을 제대로 보았다. 깨달았다.
 선생님을 제대로 보았다. !!

□ 조은 목사 말씀

“성령을 받아라 ! 주의 몸이 되어라 !”

섭리사 각 개인은 각자 나를 찾아라. 내가 응답하리
 라.

응답할 때까지 찾아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청중 가운데 가지 않고 개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타
 나신다고 말씀하신다.

100%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진정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여호와께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함으로 여호와를 만나야 한다.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응답해 줄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만나지 않으면 남의 주님으로 끝나 역사를 펼 수 없
 다.
 섭리역사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갈 수 있
 다.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객이 된다.
 객은 언젠가 떠나야 한다.
 객과는 평생 살 수 없다.
 객이 되지 않아야 탄소리를 하지 않고 섭리사의 주인
 이 된다.
 주께서는 주인된 자를 원하신다.
 심정, 그 몸, 일체된 자를 찾고 계신다.
 행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얼마나 행하였는가?
 “너는 평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
 지식을 채워놓아라”는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개인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해라.
 나는 노력하고 있다.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미 그것을 느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의 의와 성실
 함을 따라 심판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니”
 다윗은 절대적인 순간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셧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르셨다.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설만한 물가로 인
 도하시는데도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였
 다.
 궁핍함 중에 여러분 이렇게 살으셨습니까?
 신부될 자를 찾고 계신다.
 몸될 자를 찾고 계신다.
 오직 한 해에만 몰두시키고 계신다.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하지 않을 자, 초지 일

관할 자.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대로 찾고 계신다.

 예수님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을 열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말하리라.
 내 마음문을 노크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말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시는 이 때에 진정으로 사람
 을 찾고 계신다. 진정 감사함을 느끼는 자인가를 찾
 으신다.
 올 한해, 용서의 열매로 한 해를 마치게 하셨다.
 이때, 새벽 잠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데 모든 것을 투
 자할 때다.
 평소에 주님을 완전하게 모시고 설교하면 가식 설교
 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단상에 올라갈
 수 없다.
 조은 목사
 “기도하고 밥 한끼 먹고, 차안에서 말씀을 계속 보
 고”
 매일 매일 입에서 거품이 나더라.
 이제 주와 함께 생명 전도 !
 이제 매일 매일 주를 만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선생님께서도 조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한마디
 가 코치가 없다.
 주와 통하고 주와 일체된다는 것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주님과 일체되지 않으면 가식의 설교, 생명력이 없는
 설교가 된다.
 완전히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선생님께서 목숨걸고 말씀을 받아 오셨으니 우리도
 목숨걸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가식의 삶, 형식의 삶.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으면서 단상에 올라가면
 그것은 가식의 삶, 형식의 삶이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 값을 보시고 말썰
 을 주신다.
 절대 그냥 주시지 않는다.
 조건이 되어야 그 말씀을 주신다.
 그 근본이 서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
 수님과 일체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전할 수 있느
 나?
 행동의 삶, 실천의 삶 이것이 섭리의 기본이다.

섭리 목회자, 누구입니까?

선생님을 목회자로 주님이 세우셨다.

여러분이 단상에 목회자로 세우셨듯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여전합니다.

절대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만약 내가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쫓아 살면 그것은 나태해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섭리사 참 힘들고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시고 사는 삶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생을 무시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마치 이러한 격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머슴과 같이, 종과 같이 사는 사람..

그런 자에게 절대 역사할 수 없다.

정말 주인된 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단번에 그런 말을 잘라야 한다.

회개는 끝이 없다.

용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범석 목사님에게 대해 저에게 엄청난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 그가 나에 대해 엄청난 말을 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런 자 입만 가지고 사는 자, 결국 선생님에게도 악평을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에게, 형제들에게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다.

조은 목사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하니 벗어날 수 있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니 신입생도 섭리사로 옮기게 되더라.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힐문하는 자.

주님은 인격위에 역사하신다.

다시는 섭리사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는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하시면 안된다.

정말 회개하고 청산하고 가야 한다.

예수님 왈,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하며 또한 너 자신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산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산다.

개인이 예수님에게 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된다.

반드시 주님과 만나야 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 자기 성향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

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에게 구해보아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회개할 것 정확히 하고 잘한 것 있으면 얘기해보아라.

그러면 될 것이다.

조은 순회목사

매일 폭발과 같은 역사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칼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1시간 반 자고 여기 왔습니다.

잠을 못 자면 생명을 잃습니까?

기도를 못 하면 생명을 잃습니까?

기도를 택할 것입니까? 잠을 택할 것입니까?

기도를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정신과 영이 예수님을 불러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러야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기 문제에 대해 알고 정확하게 구해야 한다.

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준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님도 마음을 알아주면 응답한다.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인다. 눈에 보인다. 말문을 잊지 못할 정도로

그 엄위함과 정결함이, 깨끗함이 보여 그것이 다 우리를 덮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다 보여 눈물이 나오더라.

본 것만은 정확하게 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확한 증거이다.

광주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을 느꼈는데 그날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투시하면서 쳐다보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느껴 너무 긴장이 되어 떨려서 말쑼을 전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영적 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셨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최고로 영적인 시간 그 시간을 써야 한다.

그 시간이 되면 정말 고비이다.

너무 힘든 시간이다.

그 시간을 도전해야 한다.

꼭 도전해야 한다.
 무조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만 청산유수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너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반드시 깊이 기도해야 한다.
 섭리사에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그 응답을 해주신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니 기쁜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 역사, 영적인 역사, 긴장된 역사를 깨닫는 자, 불이 식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너도 역시 주님의 작 사랑을 풀지 못한 자가 아님을 알아라.
 아직 시작이다. 아직 시작이다.
 오늘 쓰임 받고 내일 주와 떨어진 자가 되고 싶지 않다.
 매일 매일 하루를 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식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절대 식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그 불을 유지시켜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나 하나님의 정한 때는 꼭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끝까지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랴!
 절대 막을 수 없다.
 성령 집회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은 한 사람을 이야기 하셨다.
 충만히 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시, 세상의 계시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한 세계이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절대 회복할 수 없다.
 더 이상 타락은 없다 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
 돈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절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을 멀리 하면 딴 생각이 든다.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내일은 안하고 싶고 ...

이런 일로 인해 우리는 암세포처럼 잠식하게 된다.
 절대 이렇게 잠식되게 되면 안된다.
 저는 주님을 벗어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영의 생명을 잃게 된다.
 목숨을 내 놓고라도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저버리고 가면 절대 안됩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
 안 나갈려고 했지 그러나 나갈 짓을 하니 나가는 것이다.
 주여! 하면서 회개하지만 그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아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뜻을 실천할 자를 찾고 있다.
 사도바울
 “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 쏫대를 향해 끝없이 나아간다.”
 성령의 역사,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빠질 살이 없을 정도로 빠졌다.
 처음에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만 전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제발 당신이 전해주시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엄청난 역사 우리가 다 주인되어 “내가 전하지 못하면 섭리역사 망해!!”라고 할 자가 없습니까?
 이제 각자가 말씀의 폭탄이 각각 터져야 합니다.
 막는 만큼 터지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외쳐주어야 합니다.
 섭리의 스타일대로 조은 목사를 교훈해 준 사람이 없었다.
 목숨 걸고 선생님께 매달렸습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울컥울컥 올라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상이 배웠다면 끝까지 외쳐야지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패배자가 됩니다.
 절대 영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끝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이 해야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두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술, 담배 마시면 지옥에 갑니다.
탄산음료 마시면 지옥에 가는가?
(커피, 라면, 과자, 탄산음료 - 건강상의 문제다 !)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다
음날 예배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교역자가 그 술 먹는 것을 하나 풀어주지 못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다.
교단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제시해주고 발판을 마련
해주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일하는 곳이다.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은 말씀으로 섭리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진실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되면 안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외쳐주고 말씀으로 성령
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야 완전한 역사요, 변화되
지 않는 역사가 될 것이다.
가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
다.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선생이다.
주님의 평강을 빈다.
어느 해보다도 거친 쉼을 쉬면서 다 뛰니 겨우 한 것
같다.
말씀을 한번도 거르지도 않고 보낸 것이 기적이다.
주님은 이럴 줄 알고 7, 8년 동안 내 글씨 알아보는
자 키웠으니 당행이다.
일반 목회 아닌 섭리 목회 하느라 고생했다.
희생의 목회, 부지런의 목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관리하는 목회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핍박과 어려움에서 양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혼자서는 힘드니 능력있는 자 잘 뽑아서 해라.
전쟁터에서 숫자 적으면 기가 꺾인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목숨 걸고 섭리 뛰지 않으면 안된다.
지도자로 인해 교회 부흥이 크게 좌우된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순교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그동안 너무 전도가 안되었다.
10년 동안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같이 하면 10만은
넘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전도의 심판 값이다.”
이제 전도가 안되는 목회자가 있으면 안된다.
목숨 걸고 하면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 핍박 무서워서 안되랴?
과거에는 핍박 많아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핍박

무섭다고 해서 안하면 안된다.
이제 전도 열심히 해야 한다.
선생은 시대 말씀을 밀려오게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
로 오게 하고 있다. 문화예술, 시대 말씀으로 불러
오고 있다.
선생이 할 때도 핍박 많았다.
전남대 300명 될 때 그냥 된 것 아니다.
선생이 25번 갔다.
관리다. 조직이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
풍세를 알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뎀을 잡듯이 충분히 교육시키지 않는다.
선생만 쫓아다니고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는 자 결국
쓰러졌다.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마귀에게 핍박받아도 살아날
수 있다.
참 말씀이 깊습니다.
이렇게 나도 예수님께 고백한다.
이런 말씀 들으니 다 살아나고 있다.
30개론의 핵심, 주일 말씀에서 빼내어 가르쳐야 한
다.
부활의 모든 핵심도 전해야 한다.
누구는 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 먼저 구해야지 천국 얘기 하고
있겠느냐?
주님이 다 가르쳐줘 안다.
안 가봐도 안다.
천국 갔다 온 자들 이야기도 내가 묻는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게 해주마
새벽에 기도할 때 천국이 얼마나 크냐고 물으니
주님이 “너 육신만 하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천국 우주가 얼마나 큰 지 알았다.
내 육신만 하다는 것을 풀면
빛으로 150 광년을 가도 못 다다를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육신 사는 것보다 100배 이상 크다.
지상우주보다 더 큰 천국 우주가 있다.
수천억의 천군, 천인이 있다.
육신의 세계도 큰데, 수천억의 영인이 돌아다니는데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크겠느냐?
큰 건물은 5000리가 넘는다.
한 문의 크기가 120리이다.
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 성이 갈대로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같더라.
일 스타디온은 185미터이고 한 각이 만 이천 스타디
온이라면 얼마나 큰 것이냐?
성의 한 각이 그 정도인데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

느냐?

성전이 그렇게 크니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크겠느냐?

인간의 걸음으로 6개월을 도니 한바퀴 돈다.

한국의 모든 건물을 다 합쳐도 천국의 한 건물의 높이보다 높지 못한다.

이런 설교를 하면 개들 짓듯이 짓는다.

천국에 갔다 온 자들이 있지만 다 수준대로 본다.

천국도 건물을 지을 때 말로 짓지 않는다.

직접 짓는다. 일일이 짓는다.

일일일 다 건축한다.

오늘은 긴 이야기 하지 않겠다.

모두 성령 충만히 받고 목회 하자.

살아 있는 자 어떻게 휴거되는지, 죽은 자 어떻게 휴거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너무 재미있다.

모두 열심히 해라.

성령 많이 받길 빈다.

조은 강사 열심히 기도해줘라.

성령 충만히 받길 기도한다.

<조은 순회목사 말씀>

말씀에 집중하는 자 불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말씀을 듣는 행동, 앞에 앉은 자 불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졸지 않고 집중하는 자, 모든 신경을 그 곳에 쏟는 자 불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순간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바랍니다.

온전한 말씀, 어디서 어떤 역사 일어날 지 모른다.

아멘 하면서 교역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들 가장 이쁠 것이다.

반응하는 자, 상큼한 자, 심장 고동소리를 맞추는 자, 그 발에 척척 맞추는 자.

12월 말까지 불을 일으켜 교회에 불을 일으켜야 한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입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안 될 때 많습니다.

마이크를 던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인형을 사러 갑니다.

끝까지 그 병아리 인형을 구해오는 사람입니다.

부활절이라 병아리 인형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종이에다가 병아리 그림만 그려서 2시간을 둡니다.

결국 그 인형 구해오십니다.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선생님을 배워야 합니다.